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94년을 생동하는 선교의 해로

다음 주일(30일)은 선교주일로

세계에서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들!!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참2:14, 령1:8)

1월 23일	2월 6일	3월 13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15일	5월 29일	6월 12일	6월 26일	7월 10일	7월 24일	8월 7일	8월 21일	9월 4일	9월 18일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월 23일	2월 6일	3월 13일	4월 24일	5월 1일	5월 15일	5월 29일	6월 12일	6월 26일	7월 10일	7월 24일	8월 7일	8월 21일	9월 4일	9월 18일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회의가치 • 선교부흥을 위한 대 • 세전목회자모임실경
강남구 대치1동 1007-2 전화 564-5251-6 FAX 563-7716

국민은행 078-24-0317-703 은행상(선교부 계), 우체국 012705-0033088-11(선교국)

94년도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목회 방침을 따라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위원회에서는 '94년을 생동하는 선교의 해'로 정하고 위원장 하대선 장로와 지도 김양홍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선교 위원들이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당회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일(30일)에 총회적으로 실시하는 선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선교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다. 총회 산하에 속해 있는 전국 교회가 참여하는 선교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교회는 남달리 뜻 깊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교 헌신 예배에는 선교사로 파송될 두 분의 목사님이 헌신되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분은 각기 우리 교회에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쌓은 후에 한 분은 북방으로 한 분은 회교권으로 파송을 받게 된다.

또한 세계 선교가 더욱 더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 선교 회비를 작성하기도 한다. 선교사를 보낸 후에 필요한 것이 기도와 물질이다. 지난 해에도 정성껏 드린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들의 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었다. 이번에도 모든 성도들이 선교 헌금 작성에 참여하여 더욱 더 많은 선교사 파송 및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 헌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갈릴리홀에서 선교위원회 총회를 갖게 된다. 이 총회에서는 1년 동안 행할 모든 행사를 점검하게 되며 아울러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위원회 측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실행위원, 기도위원 뿐 아니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것을 요구

◀ 선교주일 포스터

하고 있다. 선교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동참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모두가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여 함께 참여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도 장학생 선발 접수

1월 23일 ~ 2월 6일, 교육국에서

장학회는 1994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장학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교육국(교육관 103호)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대상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적한 학생 및 신학원생(단 교단인정 신학원)이다.

희망자는 교육국에 비치한 소정양식에 기재한 후 본인이 직접 소속 부장과 위원장 및 교구 교역자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활발한 지역일꾼 모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교구내 지역별 모임이 시작됐다. 각 지역장 책임하에 지역일꾼들이 모여 서로 친교를 나누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며 1년 동안 지역 및 교구 발전을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게 되는 지역일꾼모임은 가능한 2월 초순경으로 끝나게 될 예정이다.

5분 인터뷰

홍콩충현교회 담임목사로 가는

윤용규 목사



홍콩충현교회 담임목사로 가는 윤용규 목사를 만나 보았다. 윤 목사 자신도 너무도 갑작스럽게 된 일로 어리둥절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알게 되었다.

▶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은데 그 경위는? > 글썽 저도 갑작스럽기에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홍콩충현교회의 김은택 선교사가 북방선교에 주력하기 위해 홍콩에 새로운 교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지요. 홍콩한인교회의 의견과 당회장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로 숙고한 끝에 제가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진 듯 합니다. 저야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요. 그러나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기로 결정하니 장로님들이 많은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있을 각오로 잡니다.

..... 교회는 홍콩충현교회와 우리 교회와 형제결연 관계를 갖고 목회행정, 교회행정지원, 강단교류, 인적교류(제직 상호인정 등) 등을 갖기로 했다. 또한 윤 목사가 홍콩충현교회를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교회에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충현교회에서 꼭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일과 여러면에서 일해왔는데 좀 말씀해 주시지요.

> 금년들어 31년째 충현교회에서 생활합니다. 그야말로 여기에서 신앙의 잔뼈가 굵았

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 좋은 목사님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2대 안수집사, 1973년에 15대 장로로 장립되어 교회를 섬기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어 신학교에 입학, 1981년에 교육전도사로, 84년 강도사로, 85년부터는 부목사로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충현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 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섭섭함을 표해오니까 감정적으로는 저도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했기에 감사함으로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동안 목사님은 여러 위치에서 충현교회를 보고 섬겨왔는데 충현교회에 대하여 한마디 해주시지요.

> 여러면에서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전통적으로 말씀 중심, 성경중심으로 자라난 충현교회가 크게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속에서의 충현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속에서의 충현교회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로 내외적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성장도

작년보다 금년이 더욱, 늘 현재에 더욱 서로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윤 목사의 가족은 박월희 사모와 큰딸 혜경(바이올린 전공, 독일유학 중), 작은 딸 해란(비올라 전공, 독일유학 중), 새째 딸 혜신과 네째 딸 혜실, 군입대 복무중인 아들 성기가 있다. 갑자기 홍콩으로 가게되어 가족들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못했다.

홍콩한인교회의 교역자가 부재상태이기에 윤 목사는 지난 1월 21일(금) 기획위원장 노광현 장로와 함께 홍콩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주일(23일)을 지나고 다시 귀국 일선상의 일들을 정리하고 다시 출국하게 된다. 30여년 동안 평신도에서 집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교회를 섬겨 왔기에 교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그랬기에 더욱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양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왔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윤 목사를 쓰시지만 교회로서는 빈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홍콩충현교회가 안정되고 더욱 발전한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섭섭하지만 기대 속에 감사함으로 보낼수 있는 것이다. <영>

1. 서론

신약성경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축복에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으로 시작하여 오늘 본문인 23장에는 여덟 번에 걸친 '화있을진저' 즉 저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서 '하라'는 형태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고 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5장의 팔복과 23장의 여덟번의 화를 비교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2. 본론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23장의 여덟 번의 화 저주의 비교)

(1) 마태복음 5장 3절과 23장 13절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23장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613개의 율법을 만들고 거기다가 율타리 율법을 더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2) 마태복음 5장 4절과 23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14절과 짝을 이룹니다. 본문 14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성경에 있는 것을 번역해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경건한척 하고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집을 삼키는도다 너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길거리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과부들의 집을 탐했습니다. 예외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과부가 된 분들은 약합니다. 그때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이단종파 가운데서는 그런 돈있는 과부들만 찾아다니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3) 마태복음 5장 5절과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번성해서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도 지옥 자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지만 남이 세워놓은 탑을 헐면서까지 선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장사꾼입니다.

(4) 마태복음 5장 6절과 23장 16-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만족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이것과 대조가 되

충현강단



화를 당할 사람들 (마 23:13-36)



신성종

<목사·당회장>

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맹세하는 일을 자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면 그것은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과, 성전의 금과, 제단의 것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맹세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속여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맹세를 하였다 그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5) 마태복음 5장 7절과 23장 23,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일조 생활을 보이기 위해서 큰 밭이 아닌 모퉁이나 율타리 등에 심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것, 세부적인 것에까지 십일조를 내면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의(義)=공의(公義), 인(仁)=자비(慈悲), 신(信)=(信仰)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십일조를 내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이것도 행하여야 하고 저것

도 행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외식입니다. 이들은 약대는 삼켜버렸고 하루살이는 걸러냈습니다. 조그만 한 것,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지키고 정말 큰 것은 하나도 안지켰습니다. 한 마디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6) 마태복음 5장 8절과 23장 25-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본문 23장 25-28절의 내용을 보면 외적으로는 순전하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썩은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님은 아주 크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바

위에 자연적으로 생겨진 동굴이나 혹은 굴을 파서 가족묘지로 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직전에 거기에 회를 바릅니다. 마치 헐고 오래된 아파트에 페인트를 칠하면 새집처럼 보이듯이 묘지에 회를 하얗게 칠하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썩은 시체, 썩은 뼈 같은 것들이 가득한 냄새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심령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경건한데 속에는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7) 마태복음 5장 9-12절과 23장 29-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뺨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나, 뺨박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를 뺨박하고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바로 화 있을진저 마귀의 자녀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23장에서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본문에서 여덟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조그마한 것은 지키면서 큰 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이렇게 저렇다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온 말씀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보수적이고 정통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잘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위조지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돈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선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안에 위선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는 물론 안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순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을 아무리 깨끗하게 소제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더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방, 심령의 방도 자꾸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서, 흐리라도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수양회에 다녀 온 후에 ◆

나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나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정 성 철
(고등부·2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나는 중2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그분을 중심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을 가져 왔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구체적인 Vision도 허락하셨다. 그러나 나에게 근심이 자주 있었다. 교회, 학교, 친구, 가족 등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 '왜 내가 이런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악한 생각, 말, 행동이 나를 종종 슬프게 하였다.

수양회 첫날, 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동시에 나왔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서 이러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났다. 어찌 나에게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허락하셨는지..... '별레만도 못한 나'라는 쉽게 쓰는 말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은 적이 없었다. 그 때 나에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고통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몇번 읽고 줄 찢을 그때와는 비할 수 없는 깨달음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셨다. 나에게 세상의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강한 배타심과 경계심이 있지만, 그에 반해 나의 그릇을 주님의 것으로 넘치게 채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가끔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 - 성내는 말, 욕, 짜증 등 -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내 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에 누군가가 나를 갑자기 쿡 찌를 때 참지 못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이 솟아 나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나의 미천함과 주님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적음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길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이루며 그 분에 대한 열정으로 나의 삶을 태워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 선교주일을 맞으며 ◆

금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초대교회

김 양 흡 (목사, 22교구, 선교위원회 지도)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라면 누구나 다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것인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우가 다르다. 모양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통일되는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요, 학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요, 특정인의 관심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

초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우리 교회는 94년을 선교하는 해로 정하고 온 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제 선교사 후보자로 두 분의 목사님을 초빙하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으며 앞으로 이 분들이 파송되기까지 얼마나 기도로 동참할 것인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가슴 뿌듯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분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분이였다. 자신을 선교사로 보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다고 한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지 얼마 안되며 이제 막 부흥의 일로를 걷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므로 교회당이 좁아지게 되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90일 금식기도를 하는 도중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회당 건축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하던 90일 금식기도를 중단하고 선교사 파송을 위한 9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였다고 한다. 초대 교회의 모범을 뒤따르기 위한 결정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전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선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일진대 그렇게 온 교회가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가슴 설레이는 그 소식을 내 마음 속에서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그 순간 곧바로 나의 마음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한 번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라고 못할 것은 무엇인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기도로 시작되는 선교에 온 교회가 동참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 그리스도의 편지 □

감사의 안경을 통하여 범사를 바라보십시오.
생애가 감사로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라는 말은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별빛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같은 은혜를 받고, 달빛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감사는 데 큰 복을받는 비결이요, 받은 복을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듯이, 조그마한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만 생기고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의 안경을 통하여 범사를 바라보십시오. 생애가 감사로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지난해 예수사랑주간치를 통하여 시작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제는 각 분야별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전도의 접촉점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소개해 본다. 이 내용은 장년부용 서신 12개 중 여덟번째 것이다.

■ 한 권의 책 ■

말바닥 전도

권경식 지음, 글로리아출판사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로 10:15)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전도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길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전도자 자신에게는 영광과 상급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갔고, 도마는 인도를 향하여, 마가는 애굽을 향하여, 윌리엄 케리는 인도로, 모리스와 테일러는 중국으로, 리빙스턴과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한국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은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왕 한 사람을 소개하며 그가 쓴 전도수기 '말바닥 전도'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안강읍에 소재하는 약 600명이 출석하는 연가제일교회의 권경식 성도입니다. 그는 직업

도 그리 화려하지 않은 예비군 중대장이다. 세례 받은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는 평신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총동원 주일에 초청된 8,837명 중 약 1/3인 3,170명을 혼자 전도해서 당시 한국 초유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한 3,170명은 안강읍민 3만 3천명의 약 1/10에 해당되며 총 42일간 하루 평균 75명을 전도한 셈입니다. 자기가 만든 전도지 24,000매를 사방 20Km 지역 안에 뿌려서 당일에 비스산 14대를 동원하여 3,170명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의 전도 대상자는 모든 장소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그야말로 총동원 했는데 읍사무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통기관, 사회복지기관, 모돈·회사, 기업체, 공장, 농장, 목장 등을 총망라하며, 자기 집안, 친척, 문중, 학교와 군대의 모든 친구와 동지들, 동네사람, 각종회파, 계모임, 각종 클럽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여 인도한 것입니다.

지칠줄 모르는 중대장 담게 짧은 기간 안에 최대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나중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의 열정과 방법, 순종심은 우리 모두 배울만 합니다.

이 책이 비록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 전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좋은 방편과 한 모범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 책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조 윤 재(목사, 제1교구 담임)

겨울수련회 계속

교회학교의 겨울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1월 19-21일까지 중등1부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제하에 충현기도원에서 김희수, 김찬곤, 윤삼중 목사를 강사로 모였고, 금주에는 1월 24-26일까지 '믿음을 확증하라'는 주제하에 이종대 목사를 강사로 중등2부 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모인다. 다른 부서들도 수련회를 위한 준비기도회, 준비모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컴퓨터 기증

지난 93년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지도자 대회에 참여한 50여명의 청년들은 매일 한 차례씩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 위원회의 더 넓은 활동을 위하여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회비를 모아서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여 선교위원회에 기증하였다.



지난 13일(목)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찬송가 경연대회에서 본 교회 초등6부 찬양대가 대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감사식이 지난 주일(16일) 저녁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있었다. 부상으로 피아노 1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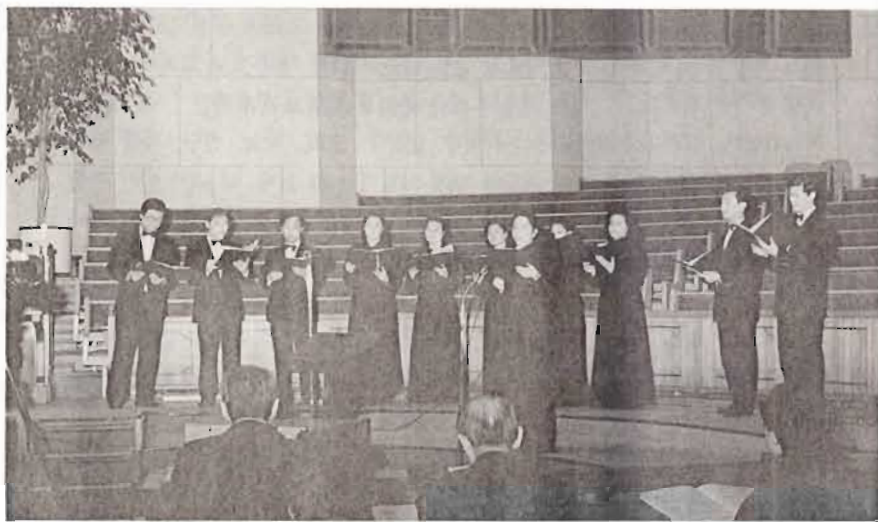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6일(수) 베엘 성서회관 봉헌예배 축도
· 신성종 목사님 : 27일(목) 목회신학원 특강(충신대 강당)
2.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각 구역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부흥되게 하소서.
4. 각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5. 지역일꾼모임을 통해 충성을 다짐하며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신작찬송가 발표회/ 지난 수요일(1월 19일) 11부 예배후 '94한국신작찬송가 발표회'가 교회에서 있었다. 한국찬송가 공회가 주최하고 우리교회 가브리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단, 최덕식 집사의 솔리스트들이 참여하여 '죽을죄인 살려주소' 외 20곡의 한국신작찬송가를 불렀다.

◆ 부서를 찾아서 ◆

도서관 / 선교관 401호

신앙생활 및 기독교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동서와 양서를 포함해 16,000여권의 장서 소장
이용시간은 화~금요일은 오전 9시~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주일은 오전 10시 20분~오후 4시 50분까지

도서관 문을 여니 바로 책상이 나타나고 책상 위엔 '도서장학과 김정은'이라고 새겨진 아이보리색 명패가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들어서면서 오른쪽 문을 통과하면 16,000여권의 장서가 뿔뿔하게 꽂혀있는 서가가 있고, 왼쪽엔 20여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열람석이 있는 참고도서실이 있다. 도서관에는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김정은 선생이 상근하고 있다.

우리 교회 도서관은 선배들의 신앙과 문화유산을 계승, 유지, 발전시키고 교역자와 교인들의 신앙향상과 학문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전인 1973년에 문을 열었다. 처음엔 성경연구원에서 함께 운영되어 오다가 76년부터 분리, 그리고 84년에 교회가 이곳 역삼동으로 이사하면서 교육관 6, 7층에 규모있는 열람실을 갖추고 운영되었다. 그후 교회사정으로 선교관 2층으로 이전, 다시 작년 2월 현재 위치인 선교관 401호로 이전되면서 일반 열람실이 폐쇄되고 현재는 대출위주의 자료이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람방식은 개가식이다.

"우리 도서관에는 현재 동서와 양서를

포함해 16,000여권의 장서가 소장되어 있는데 기독교 관련 서적이 14,000여권, 일반서적이 2,000권 정도예요. 수서는 구입과 기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매월 80권 정도 구입되고 있고 잡지와 신문을 포함한 정기 간행물들이 57종 정도 수서되고 있어요. 도서구입은 이용자들의 희망도서와 신간도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서추천담당 목사님께 의뢰하고 목사님께서 추천해주신 도서들을 구입하고 있어요. 기증은 비정기적인데 그동안 아끼셨던 도서를 기증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요. 앞으로도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서관 발전과 성도들의 신앙향상, 그리고 후배들의 학문연구를 위해 많이 기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교회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이고 화~금요일은 오전 9시~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주일은 오전 10시 20분~오후 4시 50분까지이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대학부 이상 성인에 한한다. 단 신학교에 진학을

준비하는 고3은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를 대출받으려면 도서대출증 발급 신청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 대출증을 교부받으면 일반성도의 경우 3권 이내의 책을 7일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후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책당 1일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 연체료는 모아서 어린이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서관의 성격도 아니고 규칙을 엄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금이다. 그러므로 규칙을 지켜서 많은 책을 많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돌려보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최근 연체료가 조금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도서열람자에게 바라는

일은 책을 소중하게 다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읽던 곳을 표시하기 위해 책장을 접거나 침질을 해서 넘기는 것은 책 훼손의 지름길이지요. 어떤 분은 책을 받자마자 습관적으로 반으로 꺾어 접거나 들들 마는 분이 있어요. 한달 전에 구입한 책이 벌써 2, 3년은 사용한 것처럼 낡은 것도 있어요. 서가를 정리하면서 이런 책을 발견하면 제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은 어떤 분들이 와서 자료나 정보를 부탁할 때 상대방이 만족해 할 만큼 도와줄 수 있을 때예요. 그분들도 무척 고마워하지만 저도

사서로서 큰 기쁨을 느껴요. 그러나 한편으로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 열람실이 부족해서 그냥 되돌아가는 분이나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죄송하고 안타까워요"

현재 도서 관리 전산화의 첫 단계로 도서정리와 관리자 검색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대출관리와 열람자 검색까지 전산화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평일도 그렇지만 특히 백여명 이상 열람하는 주일이면 혼자서 동분서주, 그래서 가끔 짐짓을 거르기도 한다. 도서관 관련학을 전공하시는 분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도서담당 김정은 선생과 상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선생은

가끔 국립도서관에 들를 때 마다 그곳에 있는 시청각자료실이 제일 부럽다고 한다. 그곳에서 헤드폰을 끼고 최신 음영기기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교회는 언제쯤 저런 도서관을 가질 수 있을까 꿈을 꾸어본다. "꿈은 아름답잖아요? 설령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책속에만 묻혀 살아서일까? 꿈 이야기를 하며 미소짓는 김정은 선생의 고운 얼굴에서 잘 우러난 '북치'같은 정갈함과 함께 참한 예지가 살며시 묻어난다.



▲ 늘 책 속에 파묻혀 일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김정은 선생.